

VI. 산골짜기에서 희망의 날을 위하여

양협 강원도지부
차 병 권 감사

내고장 소개

내가 살고 있는 정선군은 태백산 광산지구에 위치한 지하자원이 풍부한 광업 도시이자 정선 아리랑의 본 고장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30%에 달하는 연 1,200천톤이 넘는 석탄과 석회석은 전국 매장량의 25%가 매장되어 있으며 경지면적의 대부분이 해발 400m이상 지역으로 고랭지 약초 재배가 적지로서 황기·당귀 등이 전국 생산량의 40%을 차지하여 전국 유일의 황기 주산지이다

주요관광지로는 화엄동굴, 소금강, 가리왕산자연휴양림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양묘사업 동기

1987년 여름 영월에 계신 아버지께 군 제대 인사를 드리러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십니다. 그해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날도 수건이 흥건할 정도로 연신 땀을 닦고 계셨지요. 그 모습을 보며 몇일 도와드리고 상경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몇일 지내면서 심부름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논둑의 풀도 베어보고 하면서 어릴적부터 보아온 것이지만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농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기계치이십니다.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은 원동기 밖에는 다루실 줄을 모르시죠. 당시 농작업 기계라고는 경운기, 고압분무기 정도가 고작인데 그나마도 아버지께서는 경운기도 남의 손을 빌려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작업은 사람의 손을 빌려야만 하였습니다. 일부 수종은 비가 오고 난 다음 해만 나면 바로 소독을 해야하는 수종이 있었지요. 고압 분무기라는데 하루에 살포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되지 않지요. 이렇게 몇칠만 지낸다는 것이 어느덧 가을이 되어 굴취·가식할 때가 되었고, 지난 여름을 되집어 보며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처음 접해 보는 나무기르기

양묘사업에 처음 접해본 나는 용어 자체도 모르고 1년만 기르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난해에 파종한 묘판에서 제초작업, 순따주기, 간인 등 기초부분하고 나머지는 부친(차태숙)께 지난 수십년간 터득한 기술로 양묘사업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양묘를 시업할 때 농촌에는 유희 노동력이 풍부하여 인부를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며 임금도 남자 5,000원, 여자 2,500원으로 충분한 노동력으로 1년 동안 묘목을 기르는데 문제가 없었다.

가장 어려웠던 점

이렇듯 순탄할 것 같던 사업은 몇 해 지나며 외부의 환경 변화로부터 어려움이 왔다. 고랭지 채소의 재배면적이 급속히 늘어 나면서 인력의 부족이 나타나고 또한 이것이 하루가 다르게 인건비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어 거의 모든 작업을 인력에 의존하는 양묘로서는 시업후의 제초, 간인등에 있어 절대부족의 인력난을 겪게 되면서 제때에 작업을 하지 못하므로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하는 악순환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작업도구의 개선 여러 가지 기계의 도입등으로 어느정도의 충격을 완화하여 안정이 되어 갈 때인 1998년 가을, 우리 옛 말에 밤새 안녕이라 했던가요 그날 밤의 서리는 낙엽송 성묘 일백만본을 하루아침에 상품에서 폐기해야하는 애물단지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때의 좌절은 커다란 충격으로 오랫동안 기억의 한편을 차지하고, 마음의 한편을 누르던 절망이 서서히 잊혀져 갈 즈음 조금씩 회복되며 새로운 희망과 꿈을 키워 갈 때 또다시 매미와 투사라는 이름의 두 태풍이 강원 영동지방과 태백산맥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리며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저희 마음을 휩쓸고 지나가며 두 해에 걸쳐 잣나무, 자작, 소나무, 느티등 오백만본에 7억원의 묘목을 휩쓸고 가는 난관을 격으며 또 다른 시련의 시간이 엄습하며 사업의 존폐의 기로에 서서 깊은 시름에 잠겨 산천을 헤메는 날들이 늘어 갈 때에 불현듯 나의 마음의 창으로 들어오는 울창한 산림은 시련을 이기는 힘과 지나온 날들의 땀과 눈물, 슬픔과 기쁨의 날이 스쳐 지나 새로운 세계로의 문을 여는 나무를 보게 되어 저 나락의 끝에서 두 발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산으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보람을 느꼈던 일

국토의 정중앙 양구의 뻘치불에서 시작하여 전남 월출산까지 이십여년간의 산행은 많은 조림지 천연림지대를 돌아보았고 만나는 산의 수림대는 지나온 시간의 벽찬 감동의 시간들로 다가왔습니다.

양구 뻘치불에서의 아름들이 낙엽송을 보면서 아버지의 땀과 젊음이 녹아들어 미래의 나의 감동을 미리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곱게 자라는 나무의 자태를 보며 나의 아이들이 곱게 자라 주기를 바라는 기도로 변하여 씨앗의 파종에서 작은 묘목으로 키우는 나의 모습을 내가 어릴적 아버지의 자전거 뒤에 타고 양묘장의 어린나무를 바라보던 것과 같은 감동을 나의 자녀들이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른 묘목이 훌쩍 커버린 모습으로 나의 눈의 창으로 들어 올 때 그 감동의 요동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양묘사업의 현주소

당면 현안으로서의 양묘사업은 갈수록 높아지는 환경의 장벽과 여러 환경단체들의 거센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가운데서도 향토수종의 개발과 종자의 유전자 보존, 양묘

의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용기묘 생산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우리 노지 양묘의 현실의 농촌의 구조적인 노령화와 맞물려 갈수록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진 임업국의 선례로 보아 독일과 캐나다의 양묘의 현주소를 보건데 이제 시작한지 몇 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의 경험과 성공 사례를 시설 양묘를 더욱 확대하여 감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에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시설 양묘의 표준 시업 방법과 규격, 현실적 가격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수종의 다양화도 병행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헛개나무, 낙엽송, 음나무, 주목 등.....

앞으로 양묘사업의 경쟁력 제고

지금까지 양묘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정양묘 체제로 유지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지난 '97년도부터 묘목지정 및 구매방법 개선요구 등 지정 생산제도 폐지 및 묘목구매 공개입찰 등으로 양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양묘산업의 위기가 닥쳐 올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양묘협회 회원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지정만 해주면 100% 판매가 가능한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국토의 녹화를 위하여 노력한 만큼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선진국가에서는 양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용기묘, 시설양묘 유전자 보전을 위한 다양한 양묘기법 개발등을 통하여 과거의 노지양묘 체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있다.

우리도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향토 희망수종 발굴 종보전과 산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종으로 양묘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맺는말

오늘 우리도에서 전국 양묘기술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뿌듯하게 느끼면서 양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선진국의 양묘기술 도입은 물론 우리 회원들 상호간에도 정보 교환, 기술전수 등을 비롯한 새로운 기법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양묘산업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한 온실, 관정, 용기묘 기술개발과 토양개량 사업 등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제가 양묘사업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일이든 한번 시도하면 한 우물을 파라는 속담처럼 주위의 유혹과 꾸짖음, 좌절감을 성공의 원점으로 생각하면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를 아끼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